

“비이원론적 사고 ‘분쟁 끝내는 열쇠’”

뉴욕주립대 뉴스레터 9·10월호 ‘몸·몸짓의 논리’ 영문판 2면에 걸쳐 다뤄

미국 불교학계 원로이자 미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동양학과) 중진교수로서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박성배 교수(76). 노 교수의 일생을 회향하는 대작인 불교철학 에세이집 <몸·몸짓의 논리>는 2007년 국내판 출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최근 미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북스토어 뉴스레터 9·10월호(이하 뉴스레터)에서 박성배 교수와 저서 <몸·몸짓의 논리(The Mom/Momjit Paradigm)> 영문판(뉴욕주립대 출판부) 2면에 걸쳐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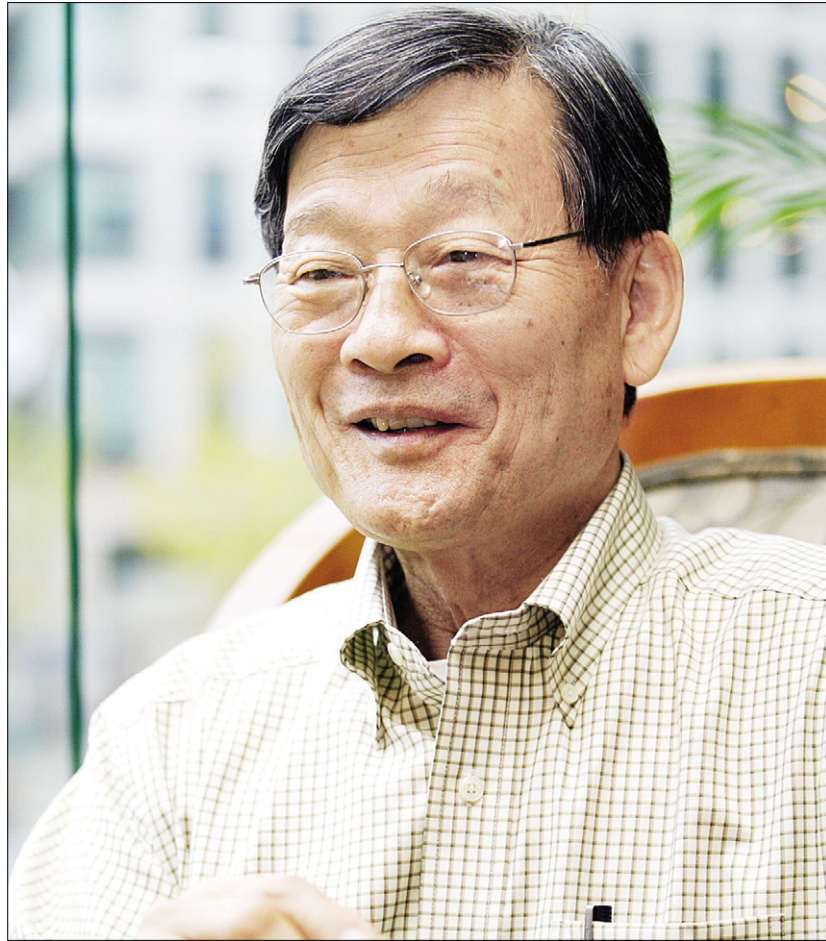
뉴스레터는 “한국불교를 새로운 시각인 몸-몸짓의 패러다임으로 소개하는 책이 영 어권에서 발행됐다”며 “박 교수의 이번 책이 신선한 이유는 성철 스님 상좌로 3년간 출가했었고, 미국에서 한국학과 불교학을 가르쳤으므로 한국 불교학과 영어권의 양쪽 세계에 실질적 경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됐다. 박성배 교수는 제1장에서는 몸-몸짓을 정의하고 본질과 현상, 체와 용이라는 두 개 차원이 인간의 삶에 공존함을 말했다. 제2장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몸-몸짓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도구로서 화두선을 설명했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다른 가르침으로서 원효의 <대승기신론> <금강삼매경> <금강경> <육조단경>, 지눌과 유교 등을 소개했다. 현재 생활의 적용을 다룬 제4장에서는 문자문화와 무문자문화, 수행의 단계들을 말했다.

박 교수의 ‘몸-몸짓 패러다임’은 불교의 체용론(體用論)을 쉽게 풀이한 것으로 이해된다. 박성배 교수는 “체는 본질적으로 내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체가 움직여 일을 하는 면을 용이라고 한다. 용은 현상적이고 외적이며 눈에 보인다. 이 체용은 불가분의 불이적 관계에 있다. 편의상 체와 용을 몸과 몸짓으로 바꿔 이야기하자면, 몸이 움직여 일을 하며 드러나는 것이 몸짓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몸짓 뿐이지만 둘은 원래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더 나아가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생활에 ‘몸-몸짓 패러다임’을 연장 적용하면 오래 전 나와 전체의 구분이 없었던 동양사회처럼 평화롭고 수준 높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박성배 교수의 ‘몸-몸짓 패러다임’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었다. 1965년 7월 31일 대학생활교원연합회 구도부 학생 13명과 문경 김용사에 갔던 박 교수는 3000배도 모자라 산 정상까지 등산을 다녀오고 나서야 성철 스님을 만날 수 있었다.



2007년 <몸·몸짓의 논리>에 이어 최근 영문판을 발간해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박성배 교수(美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박성배 교수는 스님에게 구도부가 당면한 어려움의 원인을 상담했고, 성철 스님은 단 한마디의 말로 명쾌하게 대답했다. “눈이 용(用)에 쏠려 있구나(You are attached to momjit).”

박 교수는 “현대인에게 화두선 만한 좋은 수행은 없다”고 주장했다. “화두를 들고 있는 동안은 애쓰지 않아도 삼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오계를 지킬 수 있으며, 공리적 동기에 휘둘러지지 않고, 6개 감각기관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주의 무(無)자 화두에서 왜 무라고 했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은 성 바오로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일화와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성 바오로는 예수를 하늘의 아들인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예수의 비전에 감동 받아 그리스도교의 대변인이 됐다.

박성배 교수는 “수행자에게는 오직 화두

의 의문만이 있을 뿐 깨달음의 문제는 안중에 없다. 이런 진실한 마음은 개인의 모든 시스템에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로 인해 업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부처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불교용어의 잘못된 영역을 강하게 지적했다. “<육조단경>의 ‘무념(無念)’이 ‘no thought’로 번역된 것은 잘못이며, ‘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가 아니라 인간의 일상적인 사고법인 이원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주제와 객체,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무념은 이원론의 ‘무’를 얻어 수행자를 부처의 생각과 맞추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성배 교수는 “무념=이원적 생각이 없음=부처의 생각”이라며 “무념은 생각이 없다가거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짓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배 교수는
한국전쟁 중 불교를 만난 박성배 교수는

현재 미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학센터를 설립하고 소장도 겸하고 있는 박 교수는 매 강의마다 학생들에게 ‘사교하는 법’을 강조해서 가르치기로 유명하다. 그는 학생들에게 ‘비이원적’ 사고를 하는 법, 그리고 그런 사고 방식을 자신의 생활에 실천하는 법을 가르친다.

1933년 9월 21일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박성배 교수는 작은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소위 ‘자연교육’을 통해 공동생활과 자비의 실천을 배웠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주변 사람들을 잃은 그는 의대에 진학했다. 하지만 곧 자신이 진정 배우고 싶은 것은 인문학, 그중에서도 부처, 예수, 모하메드, 공자 등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 교수는 조계종에서 출가해 수행을 시작했다. 두 번의 출가와 환속, 도미 후 신학대학 재학, 다시 불교 공부로 이어진 그의 일생은 성철 스님 상좌라는 타이틀 이전에 재미불교학자로 현대불교학의 산증인임에 틀림없다.

1955년부터 2년 동안 대흥사에서 전강 스님의 지도로 참선 수행했다. 1956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철학과에 들어가 1960년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63~1969년 동국대 교수를 지냈다. 1966년 봉은사에서 대학생 수도원을 설립해 지도 교수를 맡았고, 1966~1968년에는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 지도로 참선 수행했다.

박성배 교수는 1969년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를 맡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40대 늦깎이 유학에, 낮에는 노동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책을 보며 고된 생활을 했다. 주경야독의 생활을 하며 그는 1971년 텍사스 남립리대에서 석사학위를, 1977년 버클리대에서 ‘원효의 대승기신론’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 교수는 동국대 교수 자리를 버리고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머물고 있는 이유를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서양인들에게 불교를 제대로 알려려면 그 나라 종교부터 먼저 알아야 했다”고 말했다.

박성배 교수는 불자들에게 이원론적 사고를 버릴 것을 당부했다.

“비이원적 즉 불이(不二)는 ‘분쟁을 끝내는 열쇠’입니다. 그러려면 두 개의 존재가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하고 서로 깊어야 합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체계적인 불교의례 연구 첫 발

청매의례문화연구원 9월 28일 개원 현판식

불교의례 전문 연구기관인 청매의례문화연구원(원장 미등·조계종 기획국장, 이하 청매연구원)이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청매의례문화연구원은 9월 28일 서울 마포구 토정동 사무실에서 개원식(결 현판식)을 봉행했다.

행사는 前 군중교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범불교대책위원회 위원장 승원 스님, 종회의원 정광·일관 스님, 조계종 총무국장 혜경 스님, 재무국장 원철 스님 등 30여 사 부대중이 참석했다.

일면 스님은 축사에서 “불교의례의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 연구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면서 “청매연구원이 체계적 의례연구의 소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등 스님은 “학술적 연구라는 연구원의 기본기능을 비롯해 의례의 의미 상징성에 대해 보급·제도·

계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매연구원은 △불교관련 무형문화 연구 △의례문화의 계집 연구 △의례관련 세시 풍속 연구 △각종 학술대회 개최 △연구논문집 발간 △연구인력 양성 등, 재무국장 원철 스님 등 30여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교계 안팎의 108인 이 발기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 승인을 마친 청매연구원 이사로는 무상 스님(前 봉은사 주지, 現 광덕사 주지), 정안 스님(중앙승가대학교 법인사무처장), 정광·승원 스님 등이 참여 중이다. 조동섭 기자



청매의례문화연구원 원장 미등 스님.

“연등회 계승해 연등축제 발전”

조계종 문화부 9월 25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열리는 연등축제(연등회)는 불교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축제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수백만 군중이 연등축제에 참석하고, 해마다 수만 여 외국인이 연등회를 찾는다. 보다 많은 대중을 연등축제에 참여시키는 세계인의 축제가 되려면 고려·조선시대 열린 연등회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문화부(부장 수경)는 9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등회의 문화재적 가치와 한·중·일 연등축제의 비교’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축사에서 “부처님오신날 열리는 연등회는 불교 전래 이전의 사상이 융합된 민속축제”라며 “깨달음을 중시하는 선종 중심의 조계종이지만 외적으로 보여주는 연등회 등 의식 또한 포교적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 김용덕 한양대 교수는 “연등회의 문화재적 가치와 세계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또한



9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전경욱 고려대 교수-연등회의 전통과 현대축제의 방안 △소방 북경사범대교수-현대 중국의 등회 △하야시 마사히코 메이지대학 교수-일본의 등회와 관련한 민속행사 △백창호 한국전통등연구원-전통 등회의 특징과 새로운 전망 △서연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연등축제의 현황과 개선방향이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연등축제가 세계화된 축제로 발전하려면 연등회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조계종은 연등축제의 문화재 지정 및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등 연등회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조동섭 기자

덤프으로 판매하는 타사 제품과 종이 질(두께), 스프링 제본 등 견고함을 비교하여 주세요!

역시 이름값하는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폐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크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규격 특대용-국전 (91.9x61.5cm) | 한지-국 3절 (30.5x63cm) | 대-국 6절 (30x31cm) | 소-4x6 12절 (25.5x26.5cm) | 탁상용 (21.5x15cm) | 미니 치량용 (8.8x9.5cm) | 메모 수첩용 (9.5x13.5cm)

감로기획

※ 카타로그가 필요한 사람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